

경제를 뒤엎든 **천재 경제학자들**의 빅 아이디어

1. 경제학자의 역할과 특징

- 경제 문제 연구, 분석, 경제 정책 수립, 보고서 작성, 데이터 수집, 경제 동향 예측
- 경제학자는 수학자, 역사학자와도 연관됨
-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음
- 정반대 주장을 한 경제학자들이 동시에 노벨상을 받기도 함

2.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 경제학자들

- 애덤 스미스(Adam Smith), 《국부론》
 - "보이지 않는 손" → 개인의 이익 추구가 시장 균형을 맞춤
- 밀턴 프리드먼(Milton Friedman), 《자본주의와 자유》
 - "정부 개입 최소화" → 정부 개입이 오히려 경제를 망칠 수 있음

3.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 경제학자들

- 루트비히 에르하르트(Ludwig Erhard), 《경쟁을 통한 번영》
 - 시장과 정부의 균형이 중요함
- 존 메이너드 케인스(John Maynard Keynes), 《고용,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》
 - 경기 침체 시 정부 개입이 필수

4. 성장을 강조한 경제학자들

- 조지프 슈페터(Joseph Alois Schumpeter), 《자본주의,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》
 - "창조적 파괴" → 혁신이 기존 산업을 대체하며 경제 성장

5. 분배를 강조한 경제학자들

- 카를 마르크스(Karl Marx), 《자본론》
 - "계급 투쟁" →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함
- 토마 피케티(Thomas Piketty), 《21세기 자본》
 - "부의 집중 해결" → 재분배 정책 필요

6.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경제학 이론

- 학교 매점 경쟁 → 시장 경쟁의 원리 (애덤 스미스)
- 경기 부양책과 인프라 투자 → 정부 개입 (존 메이너드 케인스)
- 혁신 기술 투자와 변화 → 창조적 파괴 (조지프 슈페터)

7. 결론

- 경제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
- 뉴스 속 경제 정책과 현상을 경제학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더 흥미로움
- 경제학을 알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음